

漁港消息

植井 孫
井 金
在 克
發行人
社 韓國漁港協會
法人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

TEL. 544-0610
544-0611
FAX. 544-0611

月刊: 비매물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會 訓
• 誠 實
• 奉 仕
• 創 意

漁港基盤
擴充으로
福祉漁村建設

工 期 著 早 漁 港 設 計 書 作 成 竣 事

28 處 港 對 象 投 資 總 額 452 億 圓

'91 港 灣 施 設 事 業 總 額 452 億 圓

釜 山 港 加 工 築 造 等 22 件

해안방역인공을 통해 신
규사업으로 부산항가호안
축조등 모두 22건의 항만
시설공사의 총 5백45억 8
천2백만원의 예산을 집
행키로 했다.
해항성의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부두축조
및 확장 4건, 방파제 축
조 6건, 항만주설 6건,
도로축조 4건, 교량개축
1건, 기계설비 1건 등
모두 22건의 항만시설공
사를 시행키로 했다.
지정별로는 △부산항건
설사무소 6건(3백74억

92 年 까 지 1 · 3 種 港 基 本 施 設 完 工 目 표

調 達 計 划 促 求

수산청은 완공일주 집 - 중후자로 92년까지 1·3 - 종어항의 기본시설을 완 - 공한다는
일찌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란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전명한 바 있다.
비록 지금부터 무려 2천 3
백여년 전 사람이긴 하나 정부
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 보
다 더 명쾌하게 개념을 정리한
말은 아마도 별로 없을 듯 하
다.
한편 경제학자 크라우스는
경제발전과 행정체제 및 제도

의 상관관계를 구명하면서
역사의 비추는 견해를 보여
주었다. 경제발전의 기본적
저해요인이 다름 아닌 행정의
박약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결국이 두 사람의 말을 들
어 보면 남의 견해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
으나 영구적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의 관대한 정부의 보다 조
급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일
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셈이
다.
그렇다고 해서 어항연계 일
반만큼 두루하여 계약과 관련
한 법률을 어항연계에 유리하
도록 조정하면 어항연계와 무리하
지 않는 판이한 점이 너무나 많
다는 것이다.

漁 港 工 事 의 成 敗 着 工 時 期 가 關 鍵

早 期 發 注 가 安 心 的 必 經 路

그러나 어항연계의 이같은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
근 다수의 어항연계는 좋지 못
했다. 조달청의 어항연계 발주
계약에 따른 시일이 관제당국
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어항연계는 어항연계 일
반만큼 두루하여 계약과 관련
한 법률을 어항연계에 유리하
도록 조정하면 어항연계와 무리하
지 않는 판이한 점이 너무나 많
다는 것이다.

해 岸 工 事 특 수 여 건 상 氣 象 依 存 度 높 아



進 度 느 릿 고 被 害 도 높 아

政 策 次 元 에 서 改 善 必 要

바 있지만 여기서 또 다시 어항
공사 특성상에 대해 새삼 강
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
해 어항연계는 공사목적에서부
터 진행방법에 이르기까지 여
러가지 측면에서 어느 일반 공
사와는 판이한 점이 너무나 많
다는 것이다.
어항연계는 어항연계 일
반만큼 두루하여 계약과 관련
한 법률을 어항연계에 유리하
도록 조정하면 어항연계와 무리하
지 않는 판이한 점이 너무나 많
다는 것이다.

어항연계는 어항연계 일
반만큼 두루하여 계약과 관련
한 법률을 어항연계에 유리하
도록 조정하면 어항연계와 무리하
지 않는 판이한 점이 너무나 많
다는 것이다.

水 産 피 해 49 億 投 入 計 划

정부는 지난달 15일부
터 24일까지 인천 감원동
한수산피해 복구사업에
총 49억 7천만원을 투입
키로 했다.
수산청의 따르면 인천
감원 동북 전담 결과 정
남 등 6개 시·도에서 어
항 13곳에 수산업이
피해수산업이와 따라
국
했다.

「9 9 年 都 給 申 請 개 善」

郵 便 으 로 도 신 청 가 능, 節 次 도 簡 素 化

조달청은 공사입찰참가
업체의 편의를 위해 우편
으로 공종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구비서류 제출절차를 간
소화하고 모든 공사입찰
에 대해 이를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공종도급조건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참
가신청자가 부친, 지청
또는 출장소 등 편리한
곳에서 면허수첩사본에
원본대로 확인을 받는다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
로도 공종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의 인력경비의 부담을 줄
이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계약일자
간소화를 위해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를
생략하는 한편 수요기관
이 조달청에 해온 현장실
명 결과공보를 없애기로
했다.

建 設 業 改 善

一 般 94 年 正 月 96 年 正 月

일반건설업의 94
년 개편되고 전문건설
은 96년 1월 완전 자유화
된다.
경제기획원의 마련한
우루과이드림형상양
계획표에 따르면 토부·
건축·토건연계 일반건설
업은 오는 94년 1월부터
100부자를 허용하고 96
년 1월부터는 외국기업지
사의 활동을 허용키로 했
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
은 건설법과 외자도입
법에 의거 국내시장진출
에 건설업 면허취득이 필
요하고 합작투자만이 허
용됐던 것이 완전히 풀리
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장개
방속에서 이와 양도, 필
수 전문인력과 숙련노동
인력의 국경간 이동에 장
구, 건설업 노동력의 적인
서비스부분의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를 계
기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방안
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
획이다.

추진방향이 따라 올해도
조기착수를 위해 설계서
작성에 열중하고 있다.
올해 투자대상항목은 총
28개항으로서 안동, 의연
도, 곡동, 서명, 구계,
모슬포 등 6개항에 4천만
내 공사를 완공하고, 격
포, 어천도, 소곡산도,
안마, 북동, 마량, 사동,
현포, 지세포, 물전, 목
지, 위미, 도동 등 13개항
은 계속투자, 그리고 대
진, 아양진, 연도, 안도,
어란진, 방어진, 영양,
정자, 추자항 등 9개항에
대해서는 보강사업을 실
시할 계획이 있다.

이에 따라 수산청은 공
사대상항별 설계서를 작
성중인데 3월 21일 현재
는 설계서 작성을 이미
격포, 지세포, 안마, 어
안포, 조달청에 계약요청
했다.
조달청은 공종도급조건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참
가신청자가 부친, 지청
또는 출장소 등 편리한
곳에서 면허수첩사본에
원본대로 확인을 받는다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
로도 공종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의 인력경비의 부담을 줄
이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계약일자
간소화를 위해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를
생략하는 한편 수요기관
이 조달청에 해온 현장실
명 결과공보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특
성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의
을 감안한다면 이에 걸맞은 대
승정 견지에서 경제 사회발전
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
약구정을 단정적으로 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코
자 하는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밝힌
계약의 주체인 정부의 일방적
인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더더
욱 아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이 근본적
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의 있
을 감안한다면 이에 걸맞은 대
승정 견지에서 경제 사회발전
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
약구정을 단정적으로 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코
자 하는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밝힌

이 강한 공사입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특
성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의
을 감안한다면 이에 걸맞은 대
승정 견지에서 경제 사회발전
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
약구정을 단정적으로 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코
자 하는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밝힌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
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바
를 상대로 건설한 어항연계를
유리한 수혜를 누리는 것이 무
엇보다 기상조건의 주요 관련
이 된다라는 점이다.
이런데 제우도 남쪽지방 어항
공사의 경우 잦은 장마와 태풍
내습 등으로 4월부터 9월까
지 실제 작업일수가 한달에
10일이 채 못되는 경우가 허다
한 반면, 10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의 오히려 온난한 기상
을 보여 한달에 20일이상 작
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어항연계의 발주시
점에서는 기상조건이 주요 관련
이 된다라는 점이다.
이런데 제우도 남쪽지방 어항
공사의 경우 잦은 장마와 태풍
내습 등으로 4월부터 9월까
지 실제 작업일수가 한달에
10일이 채 못되는 경우가 허다
한 반면, 10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의 오히려 온난한 기상
을 보여 한달에 20일이상 작
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어항연계의 발주시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도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행복하
는,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
가 있다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
가 아닌가 생각되오다.
어항연계의 원활한 조기 발
주개행을 위한 관련기관의 성
의있는 개선 노선을 촉구해 마
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도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행복하
는,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
가 있다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
가 아닌가 생각되오다.
어항연계의 원활한 조기 발
주개행을 위한 관련기관의 성
의있는 개선 노선을 촉구해 마
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도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행복하
는,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
가 있다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
가 아닌가 생각되오다.
어항연계의 원활한 조기 발
주개행을 위한 관련기관의 성
의있는 개선 노선을 촉구해 마
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도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행복하
는,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
가 있다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
가 아닌가 생각되오다.
어항연계의 원활한 조기 발
주개행을 위한 관련기관의 성
의있는 개선 노선을 촉구해 마
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도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행복하
는,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
가 있다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
가 아닌가 생각되오다.
어항연계의 원활한 조기 발
주개행을 위한 관련기관의 성
의있는 개선 노선을 촉구해 마
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도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행복하
는,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
가 있다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
가 아닌가 생각되오다.
어항연계의 원활한 조기 발
주개행을 위한 관련기관의 성
의있는 개선 노선을 촉구해 마
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도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행복하
는,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
가 있다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
가 아닌가 생각되오다.
어항연계의 원활한 조기 발
주개행을 위한 관련기관의 성
의있는 개선 노선을 촉구해 마
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도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행복하
는,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
가 있다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
가 아닌가 생각되오다.
어항연계의 원활한 조기 발
주개행을 위한 관련기관의 성
의있는 개선 노선을 촉구해 마
지 않겠다.

談合방지積極도모

施設工事계약 業務指針 개정

조달청은 업체의 담합 방지를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조건인 아닌 3군 이하공사의 배정순위를 무차위추첨방식에 의해 결정키로 했다.

조달청은 또 다수업체 가 입찰응답을 하고도 1개업체만 응찰할 경우에 는 이를 유찰시킨 후 경 정폭이 확대되도록 계약 방법을 변경키로 했다.

지난 3월 4일 조달청은 이 지침에 따르면 3 6군대당공사는 지금까지 접수순에 따라 40개업체 씩 지명해 왔으나 앞으로 는 지역업체공동도급조건 이 아닌 경우의 한해 1 주일동안 계약방법이 결 정된 공사를 취합, 같은 군에 2건이상이 배정됐 을 때 그 다음주에 무작 위로 추첨해 배정순위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긴 급공사인 경우는 행정소 요일수를 감안, 3일간격 으로 추첨하게 된다.

또한 조달청은 2개업 체이상 입찰응답을 한 군 지역업체의 입찰에 1개사 만 응찰할 경우 이를 담 합업체로 간주, 유찰시킨 후 입찰정액, 한도액 1배 수를 50%로 계약방법을 바 꿔 결정폭을 넓히기로 했 다.

올 공공공사豫示 4兆3千億 규모

10億이상工事 95.3%

정부는 올해 신규·계속 사업으로 집행할 총사업 비 4조3천억원(관급·기타포함) 규모의 각종 공공시설공사를 확정, 예 시했다.

지난 3월 22일 조달청 이 예시한 91년도 정부시 설공사 집행계획내용(건 설부발주공사제외)에 따 르면 올해 공공공사집행 규모는 총 1천2백65건의 4조3천억원으로 이중 계속공사를 제외한 순

수집행의 경우 지난해 계약실적 2조7천9백99억 96%인 2조5천9백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년에 예시된 시설공 사를 규모별로 보면 10억 원이상공사가 5백92건의 4조1천24억원, 지역업 체대상인 10억원미만이 6백73건의 2천212억원으 로 금액면에서 10억원이 상공사가 전체의 95.3%를 차지하고 있다.

工事의 隨意契約 運用要領

(會計例規 2200.04-139-3.1990.12.5)

- 第2條(執行基準)施行令 第104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隨意契約 執行基準은 다음과 같다.
1. 施行令 第104條 第1項 第1號 “가”목에서 規定하고 있는 瑕疵責任 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今次工事が 前次工事와 그 垂直的 基礎를 共同으로 할 경우와 前次施工物의 일부를 解體 또는 變更하여 이에 接合시키는 경우로서 前次工事의 規模가 今次工事規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2. 施行令 第104條 第1項 第1號 “나”목에서 規定하고 있는 同一現場에 2人 이상의 業者를 投入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今次工事が 施工過程上 다른 공사와 時間的, 空間的으로 25% 이상 重複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관한 세부절차 기준

[회제 2210-1974(1987. 8. 20)]

수의계약집행기준	세부기준(유권해석)
1) 수의계약집행기준중 전차공사와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전차공사”의 범위? (요령 제2조제2호)	- 계약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1~5년)내에서만 하자보수의무가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전차 공사로 함은 하자책임기간이 계류중인 경우임. - 규모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수량의 비교가 용이하고 간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 판단에 따라 수량비교도 가능. - 수직적 기초를 공동으로 한 경우에도 전차공사가 금차공사규모의 25% 이상이어야 함.
2) 전차공사의 규모가 금차공사규모의 25% 이상을 차지한 경우에 있어서 “규모”의 의미 (요령 제2조제2호)	- 본 요건은 작업상 혼잡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할 것임. 즉, 한가지 요건만으로는 작업상 혼잡이 야기되지 않을 것임. - 시간적 중복여부는 계약방법(수의·경쟁등)을 결정하기 전에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시점에서 예정된 착공일(설계서상 공기)을 기준으로 기산·중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그 수직적 기초를 공동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규모가 금차공사규모의 25%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25%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요령 제2조제1호)	- 시간적·공간적의 양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지? - 시간적으로 25%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행정소요일수(접수일-착공일)의 산정·적용방법
4)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25%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시간적·공간적”의 의미? (요령 제2조제2호)	- 공간적으로 25% 이상 중복되는 경우라 함은? ① 실제건축물 점유면적 이외에 중기·관급자재 등의 보관장소등 부수적인 면적도 포함되는 지? ② 토목공사 1개공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도 동 요령이 적용되는지?
5) 물품의 제조·공급자가 직접설치·조립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요령 제2조제5호)	- 예산회계법상 하자보수문제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물품의 경우 제조공급자가 직접설치·조립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한 경우 이외에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이유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



尹沃榮 수산청장



▲양양유수산업장(3월 6일) 생와대에서 개최된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공명선거실시 전국 관서 장회의에 참석.

▲이회수수산청 차장인 3월 28~30일 개최된 제 25차 한일인양양유수산업 회의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

▲이회수수산청 차장인 3월 14일 수협가락광판장, 가락동지점, 전자계산소신축공사현장을 순시하고 직원들을 격려.

▲배한간영생건설주식회사(3월 14일) 업무차 서울출장.

▲양성후세기건설주식회사(3월 12일) 후암장학회 사무실에서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2명에게 91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

▲최안복남화토건설주식회사(3월 18일부터) 5박6일 동안 중국외국 무차출장.

▲정태영유수회사삼전사

▲정태영유수회사삼전사 대표이사인 3월 8일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 간담회에 참석.

▲송재성유수회사성호회(3월 15일) 광주사무소와 여수공사현장을 출장.

▲전기설비자회사 대한토건사 대표이사인 3월 19일 업무차 서울출장.

▲고세진유수회사우주중합건설(3월 15일) 제주도 시선거관리위원회와 시청청사를 방문, 지자체 업무에 바쁜 직원들을 격려.

▲김희천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청파견관)는 3월 12일 본 협회를 방문, 지난해 4월 10만원 어항회관 건립기금으로 10만원 기탁한데 이어 또 10만원 기탁했다.

▲주홍장씨(한국인양양연합회 상근부회장)가 어항회관건립기금 10만원을 기탁했다.

▲부산공동어시장(회장 원태이)

▲삼천포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영진)

▲개인

▲황열성씨(대한농협중앙회 수산회사 경영개발대표)

▲순영수씨(전 한국어인협회 감사이사)

▲전기원씨(수산회사 영도파이프라인 회장)

▲김종봉씨(국립수산물검정소 총무소장)

▲김기욱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주홍장씨(한국인양양연합회 상근부회장)

▲최재화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원광희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이창기씨(국립수산물검정소 교수부장)

▲이전호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문용근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신석순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신병길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김용덕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박경국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양승철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송예용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노승만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개발담당관실

▲박광훈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기호준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박기철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개발담당관

▲황찬우씨(수산청 총무과)

▲이용숙씨(수산청 무역과)

▲전병하씨(수산청 어정과)

▲김하섭씨(수산청 청장비서관)

▲김희천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청파견관)

▲고덕봉씨(수산청 어정과)

▲김종희씨(수우회 사무국장)

▲구자천씨(정일감정평가합동사무소 소장)

▲이종휘씨(한국농협주식회사 상임대표)

▲황재수씨(주식회사한국수산신보사 대표이사)

▲오조환씨(중앙대학교 교수)

▲김희천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청파견관)

▲황건주씨(오양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정식씨(한국어인협회 전무이사)

▲전기섭씨(합자회사대한토건사 대표이사)

▲서기덕씨가 3월 11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경기도포천군내촌면진덕리.

새질서 ■ 새생활 캠페인

불법어업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하자

제3차 先進漁港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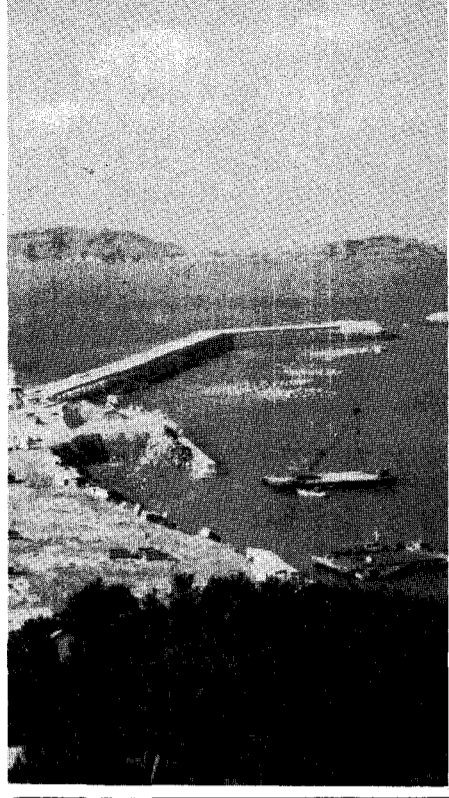
希望者 사전打診 水産施設도 見學

11月 5日 現地向發

한국어학원(이하) 제3차 선진어학시찰 참가희망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학원(이하) 선진어학시찰단을 구성, 그동안 2차에 걸쳐 해외선진국의 어항시설과 관리현황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어항기술의 진전한 발전과 어항요충 개발의 추진 및 효율적인 관리의 기여해 오고 있다.

올해 11월5일(월)부터 13일(수)까지 8박9일동안 실시될 예정인 이번 제3차 선진어학시찰은 일본(북해도, 청라현, 동경현, 오사카현) 및 어항(과대현, 대부기현, 구제중현), 팔두지어항(어항), 그리고 태국의 방콕(국제수산물) 또는 홍콩(수산물)을 살펴볼 예정이다.



日, 독특한「消波工法개발」 傾斜板式消波구조물

新日本製鐵해양사업부 凱歌

신일본제철(주) 철구(鐵構)해양사업부는 이번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특한 소파공법(消波工法)에 의해 경사판식 소파구조물(傾斜板式消波構造物)을 이회사의千葉縣·君津製철소의 사옥 후안의 준공했다.

새로운 소파공법(PPS R) (杭基礎人工工法)은 일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공법

은 어항새기술개발연구회(제7회) 철강부문의 개발 테마로서 수산청과 동대(東大) 해양환경연구소 등 관계기관의 지도하에 지난 1986년 7월부터 개발연구에 착수하였다.

PPS R공법은 모래바닥에 밀려오는 파도가 자연히 소멸되는 것과 같이 인공적으로 파도를 만들어 파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서정수면 부근에 완만한 경사(20도)를 갖는 S R C형판(철강판)을 트리트먼트(표면처리)를 하여 파랑(波)을 감속(減速)시키고 입사파(入射波)를 쇠파감(碎波減衰) 시킴으로써 소파효과를 올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파구이며, 어초로서도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漁港會館 建立基金을 募金합니다

한국의어학원(이하) 회원들의 후원으로 구현 중인 어항 시설의 자급을 감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회원들의 나사로 부탁드립니다.

회원후원을 위한 재원은 어항방안의 완공되고 있으나 회원들의 후원으로 구현 중인 어항 시설의 자급을 감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회원들의 나사로 부탁드립니다.

회원후원을 위한 재원은 어항방안의 완공되고 있으나 회원들의 후원으로 구현 중인 어항 시설의 자급을 감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회원들의 나사로 부탁드립니다.

直立式物揚場으로 改築

仁川市수협 수산물 流通센터

인천시수협은 연안부두에 새로 지는 수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재 잔교부상시설을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수협은 잔교이용선박이 유자방, 안장방의 선동 1일 50~60척의 탈해 작업이론 및 분장의 심화되고 있는 데다 현재 시설에 있는 잔교부상시설을 양방향의 차로

인천시수협은 연안부두에 새로 지는 수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재 잔교부상시설을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수협은 잔교이용선박이 유자방, 안장방의 선동 1일 50~60척의 탈해 작업이론 및 분장의 심화되고 있는 데다 현재 시설에 있는 잔교부상시설을 양방향의 차로

제주爲美港基地로 旋網수협活用건의

대형선망수협은 제주도내의 위미항을 선망업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대형선망수협은 선망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선망업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대형선망수협은 선망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선망업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會員權益 護호 基盤 다지고자

韓國漁港協會

■ 수협논현동지점 039-01-2553
■ 주택은행연주로지점 482601-87-002039

海岸사업 5個年計劃

日本政府는 2000년까지 1991년부터 시작될 예정의 제5차해안사업5개년계획에 대하여, 재정모집의 대외적 승인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4차해안사업5개년 계획은 1990년도로서 종료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토록 정비수준을 향상시키고 풍요함을 실감하는 국민생활의 실현을 향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새로 1991년도를 초년도로 하는 제5차해안사업5개년계획을 확정하였다.

漁村·漁村 현지세미나

漁村일으키기 講究

日本 全國漁港協會는 水産廳, 愛媛縣 後援의 제1회「漁港·漁村現地研究세미나」를 3월6일과7일 양일간에 걸쳐 松山市 松山全日空호텔과 今治市 今治國際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참가자는 전국 각지의 市町村長, 議會議員, 漁協組合長등 다수가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의 취지는 단순한 전문가의 강연의 틀을 넘어서 현지의 어항·어촌을 견학하면서 자신의 대표를 과 교류하여 「어촌일으키기」, 「어촌민들기」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참가자 전원이 직접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福屋水産廳漁港部長의 강연을 듣고 어항사업으로 어촌환경정비에 대한 것이 폭넓게 인식된 것을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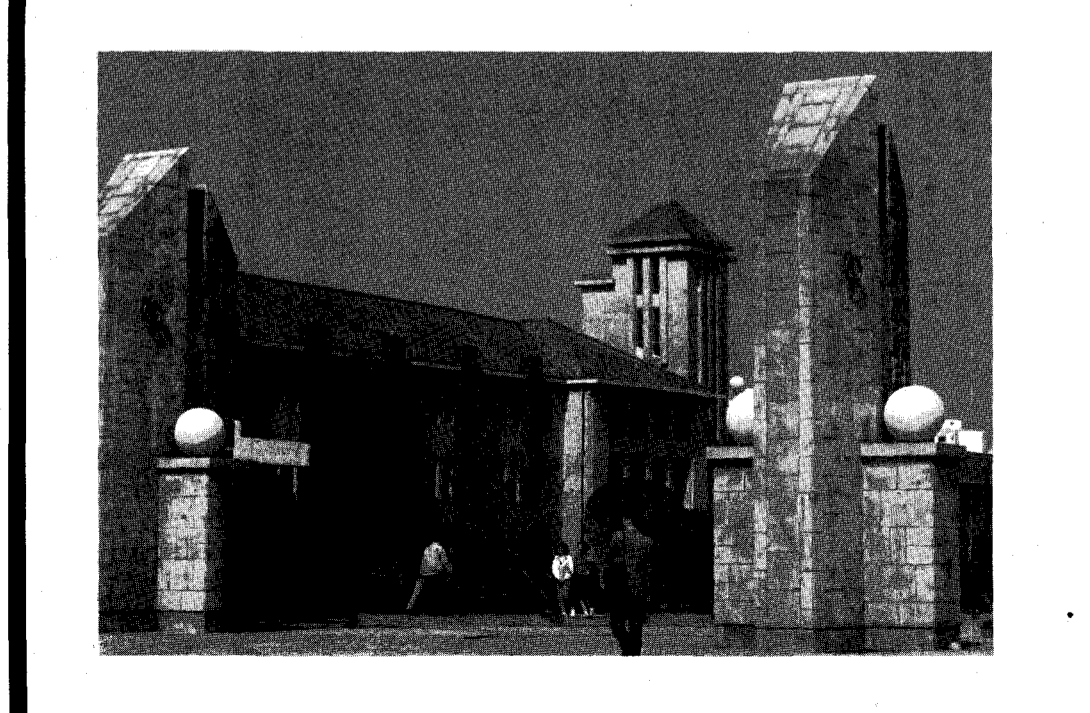
水産의 旗手들

釜山水産大學校 第14期 京知會

會長 金會千 963-1705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水産廳 派遣官)

總務 郭漢喆 736-8519
(文教部 自然科學 編修官 水産擔當研究官)

監事 金鎮基 363-3211
(北洋水産株式會社 專務理事)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22]

船揚場

선양장은 계선안(繫船岸)에 계류시키는 것보다 육상에 인양해 놓는 것이 유지관리상 적절한 소형어선(통상5톤이하)을 위한 시설이며 계류시설의 한 종류이다.

비교적 대형 어선이라도 선저소제(船底掃除)나 뺨기도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특수한 예로서 동기 유빙에 의해서 폐쇄된 항에서는 전부의 어선을 양륙하는 경우가 있다.

근년 어항이 정비되면서 태풍이나 황천시를 제외하고 소형어선도 안벽, 물양장을 이용하는 어항이 많아졌다.

다만 귀항한 소형어선의 대부분이 선양장에 인양되어 있는 어항도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1. 선양장의 명칭
선양장은 사로부분(斜路部分)과 선치부분(船置部分)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상 선치부분은 수평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대형의 어선이 선양장을 이용하는 항에서는 사로부분과 선치부분의 경계에 구배의 굴곡점이 있으면

선양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선치부분의 구배를 사로부분의 구배와 동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2. 선양장의 배치

선양장의 배치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전면의 수역이 정온하고 어선의 선양작업이 용이한 위치로 할 것.

나. 타의 어선항행, 정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다. 어항전체의 수계선이용(水除線利用)을 고려 안벽 등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위치에 있을 것.

라. 사로(斜路)의 배후에 필요한 선치장(船置場)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선양장의 사로부는 소파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유효하게 이용함으로써 박지의 정온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항내가 직립안벽(直立岸壁)으로 되어있는 항에서는 침입파가 항내에서 반사를 반복하여 정온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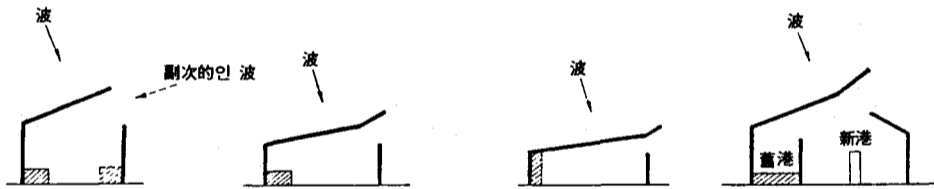
장을 적당하게 배치함에 따라 반사파를 적게하여 정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항구에서 파도를 직접 받는 위치에 선양장을 설치하면 사로에 파도가 크게 밀어닥치므로 선양장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안벽법선에 대하여 선양장을 직각으로 배치하면 안벽과 선양장에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의 이용에 지장을 준다. 또 연속된 안벽의 도중에 선양장을 설치함은 안벽의 이용 효율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배후지의 일체적인 이용을 막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는 피하는 것이 좋다.

3. 선양장의 구배

사로(斜路)의 구배는 용지 기타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원만한 구배임이 바람직하다.

구배는 통상 1/6~1/10정도가 되는 것이 많으나 레-루를 사용한다든지 비교적 대형 어선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완만한 구배로 하는 것이 많다.



船揚場의 配置例

우리가 만약 전 해역과 동남아시아 일원에서 생산되는 전부는 그 맛 또한 다른 소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전부의 생수를 생수 또는 생전복이라고 하고 말린 것을 전복 전복을 속복이라고 한다. 전복은 소복과 비복하여 약용, 영양제로도 쓰인다. 이 전복은 그 맛 또한 다른 소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전부의 생수를 생수 또는 생전복이라고 하고 말린 것을 전복 전복을 속복이라고 한다. 전복은 소복과 비복하여 약용, 영양제로도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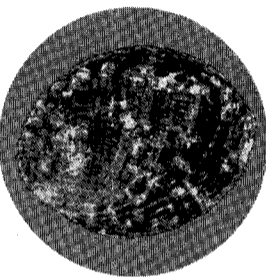
전복 기능

血壓 調整하는 機能

眼疾, 下血 等に 効험

그 효과가 대단하다고 한다. 물론 장기간 복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안질환(眼疾) 즉 눈병에는 전복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전복의 점액을 노랗게 태워서 그것을 맑은 물에 섞어서 그물로 눈을 씻거나 마시면 어떤 종류의 안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눈물이 자주 흐르며 눈곱이 끼고 눈앞이 침침해지는 증상에도 전복이 좋다.

위장을 튼튼히 하여
정력을 왕성하게 하며
간의 기능을 좋게 하여
몸의 피로를
잊게 한다.



부인의 하혈이 그치지 않고 임신 3~5개월 정도에서 태(胎)가 움직이며 불안하고 심(胎)이 낙(墜)하는 증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상의도 이 전복으로 눈을 씻고 먹고 안정하면 쉽게 회복된다. 또한 갓난아이의 젖이 적어서 보잘배는 전복으로 죽을 수 있어 엄마와 아이가 함께 복용하면 적도 많고

'잘살기' 따로없다 오직 '저축'

건강하고 젊을때 '계획생활' 습관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과 일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들 나라가 다시는 부강해지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

세계역사상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맞은 나라치고 무기력해지지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적함대를 영국에 격침당한 스페인이 그랬고 독일 연방을 통일한 '프러시엔'과의 싸움에서 진 오스트리아도 쇠약해진 나라임을 회복하지 못해 옛 영화(榮華)를 그리워만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패전의 잿더미위에서 다시 일어섰고, 오늘에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경제강대국으로 위치를 굳게 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잿더미위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나라 국민들의 저축심에서 찾는 것이 옳다. 그들은 영국 프랑스 미국등이 승전의 기쁨에 들떠있을 때 특유의 근면성을 발휘해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저축을 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투자에 필요한 돈은

저축으로 마련해 나간 것이다.

지금도 이들 나라의 국내저축률은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무엇보다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생활이 필요하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해

합격, 연기수업을 받았다.

이때 A씨가 받은 월급은 3천원. 이것을 거의 쓰지않고 모아 서울 한강변에 80평짜리 대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A씨의 계획성있는 생활은 이후 부인 C씨와 결혼한 뒤 더욱 굳어졌다.

이들은 결혼전 연애를 할 때는 주로 은행로비나 서울역

생겨야만 갑자기 나타나서 대출을 받았으며 하지만,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평소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급한 자금수요가 생겼을 때 비교적 쉽게 일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회사원 K씨는 종합상사 직원이다. 올해 35살의 나이지만 월수 100여만원이 넘고 앞으로의 출세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장되어 있었다. K씨와 그의 가족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봉급이 올라가므로 적은 월급을 받을 때 애써 저축을 해보아야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벌어들이는대로 썼다.

그러나 그것은 K씨가 건강하고 별다른 사고가 없을 때 이야기였다. 어느날 K씨가 간염으로 1년이상을 요양해야 할 사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는 20평짜리 아파트에서 13평으로 낮추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건강하고 젊을 때 우리는 더 계획성 있는 생활로 저축하는 습관을 다져야 한다.

독일과 일본의 부강, 국민저축이 바탕

저축을 늘려나가면,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국민 개개인의 생활 하나하나가 건실해질 수 밖에 없다.

중견멘턴트 A씨의 경우를 들어보자.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텔런트시험에

대합실을 이용했다.

어느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아버지에게 1천원을 타 나온 C씨에게 A씨는 돈 얼마를 갖고 있는냐고 물었다.

그래서 7백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에게는 3백원이 있으니 모아서 통장을 만들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은행의 대출창구가 서민에게 너무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J은행의 일선지점장 한사람은 그런 것도 모두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 은행거래를 하지 않다가 자신에게 급한 일이

대합실을 이용했다.

어느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아버지에게 1천원을 타 나온 C씨에게 A씨는 돈 얼마를 갖고 있는냐고 물었다.

그래서 7백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에게는 3백원이 있으니 모아서 통장을 만들자

새秩序 · 新生活

새秩序 · 新生活